



문예재단, 광역문화교육센터로 선정

전문인력 양성, 예술강사 지원 등 펼쳐

입력날짜 : 2009. 03.04. 00:00:00

도내 문화예술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할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(이하 교육센터)가 운영된다. 제주특별자치도는 3억원을 들여 제주문화예술재단을 교육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.

교육센터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로 제주, 서울, 강원, 광주, 충남, 경남 등 6개 지역이 선정됐다. 제주에서는 문화예술재단이 선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하게 된다.

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인적·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력망 구축,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지원, 예술강사 지원 사업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.

또 방과후 프로그램, 자체 기획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을 통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.

도 관계자는 "공모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무용, 연극, 영화 등 강사로 활용되는 90여명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전국 네트워크도 구축될 것"이라고 밝혔다.

이현숙 기자 hslee@hallailbo.co.kr

[이현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](#)

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(<http://www.hallailbo.co.kr>)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.

문의 메일 : webmaster@hallailbo.co.kr